

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배포 일시	2022. 7. 4.(월)		
담당 부서	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	책임자	과 장	이현주 (042-481-4240)	
		담당자	사무관	정선옥 (042-481-1831)	
	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	책임자	원 장	신창호 (033-339-9900)	
		담당자	팀 장	고범석 (033-339-9910)	

새로워진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오세요!

- 7월 4일,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개원 행사 개최

□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7월 4일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개원 행사를 개최하였다.

○ 한국자생식물원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김창열 원장이 1999년 처음 조성하여 우리나라 꽃과 나무를 가꾸고 지켜온 최초의 자생식물원이자 2002년 산림청 등록 1호 사립수목원이다.

○ 2021년 7월 7일, 김창열 원장이 약 202억 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을 산림청에 기부하면서 올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정식 개원하게 되었다.

□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규모 10ha에 자생식물 1,432종을 보유하고, 희귀 특산식물원, 독성식물보존원 등 10개소의 전시원을 갖추고 있다.

* 자생식물은 1,432종으로 희귀식물 316종(히어리, 독미나리, 산송다리 등)과 특산식물 155종(개느삼, 땃강나무, 복사앵도나무 등) 등 209만 그루가 전시되어 있다.

□ 또한,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생물다양성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보전전략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.

○ 한국자생식물원은 2004년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전기관,

2013년 산림청 산림생명자원보존기관, 2014년 환경부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자생식물에 대한 보존과 전시, 교육 등에 앞장서 왔다.

○ 앞으로,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2027년까지 연구동 신축, 시설 현대화, 전시원 확장 및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식물원 운영을 안정화하고 더욱 편안한 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
□ 세계적으로 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,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선진국들은 수목원을 조성해 식물자원을 수집하는 등 이를 자원화하는 데 적극적이다.

○ 산림청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(2015년), 국립세종수목원(2020년), 국립한국자생식물원(2021년), 국립새만금수목원(2026년) 등 국립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다.

□ 남성현 산림청장은 “식물자원 보전·관리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수목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발전시켜 자생식물을 수집, 증식 및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식물자원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겠다” 라며, “앞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수목원이 산림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지역상생·협력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” 라고 말했다.

첨부 : 관련 사진

